

주체44(1955)년을 사상사업에서 주체확립의 전환점으로 빛내이신 위대한 령도

안 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1955년에 주체를 세울데 대한 단호한 방침을 내세우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계속 강한 사상투쟁을 하여 왔다. 교조주의를 반대하는 우리 당의 일관한 투쟁에서 1955년은 하나의 전환점으로 되였다.》(《김일성전집》 제35권 169페이지)

사상의 힘으로 혁명의 전환적국면을 열어온 우리 당의 력사에서 주체44(1955)년은 주체확립의 전환점으로 아로새겨진 뜻깊은 해였다.

전후시기부터 전면에 제기하고 본격적으로 추진된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은 다른 나라들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사회경제적조건과 환경에서 진행되였다. 그런것만큼 혁명과 건설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기성리론이나 다른 나라의 경험을 가지고서는 옳게 해결할수 없었으며 모든 문제를 오직 주체적립장에서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우리 식대로 풀어나가야만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먼저 주체44(1955)년에 사상사업에서의 주체확립문제를 전면에 제기하시고 사상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근본지침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선 전후시기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사상사업에서의 주체확립문제를 전면에 제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리론실천적 문제들을 그 어떤 기성리론이나 남의 경험에 구애되지 않으시고 주체적립장에서 우리 식대로 풀어나가시였다.

그런데 강력한 사상공세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력사적진군을 힘있게 추동하여야 할 우리 당 사상사업은 당시 발전하는 현실과 당앞에 나선 혁명임무의 요구에 맞게 전개되지 못하고있었다.

그것은 력사적으로 우리 혁명의 자주적발전을 엄중히 침해하여온 사대주의와 교조주의가 이 시기에 이르러 더는 참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있었던것과 관련되였다.

당사상사업부문에 들어앉아있던 사대주의, 교조주의자들은 사상사업을 우리 혁명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우리 당의 사상과 로선에 기초하여 진행한것이 아니라 기성의 리론과 큰 나라의것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 놀음을 하였으며 사상사업에서 혹심한 형식주의를 부식시키고있었다.

사상분야에서의 사대와 교조는 실천에서의 의존과 모방을 낳고 그것이 류포되어 민족자주정신을 엄중히 침해하고있었다. 이러한 속에서 사대와 교조의 흐름을 타고 현대수정주의가 흘러들어오는것도 스쳐버릴수 없는 문제였다.

전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소련을 방문하시였을 때 수정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에서의 경제건설계획과 사회주의혁명수행에 대한 문제를 일일이 시비하여나섰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수정주의자들의 전횡을 그대로 감수하고 그들의 로선을 그대로 따르는 길로 나간다면 필연코 새로운 예측의 명예를 들쓰게 된다는것을 내다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44(1955)년에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단호한 방침을 제시하시면서 특히 사상사업에서의 주체확립문제를 전면에 제기하시였다. 그것은 사상사업분야에서 주체가 철저히 서야 다른 모든 부문에

서 주체를 똑바로 세울수 있기때문이었다.

당시 거의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이 쏘련당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것이 하나의 풍조를 이루고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저마다 큰 나라를 등에 업고 우리 당을 공격해나서고있던 조건에서 사상정신령역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사상전을 전개한다는것은 보통의 상식이나 배짱을 가지고서는 감히 상상할수도 없는 대용단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를 세울데 대한 단호한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 특히 사상사업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주체를 철저히 확립하며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우리 식으로 힘있게 밀고나가는데서 일대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주체44(1955)년 12월 조선로동당 제1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연설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에서 사상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근본지침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당 사상사업의 주체는 조선혁명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 어떤 다른 나라의 혁명이 아니라 조선혁명을 수행하는것은 조선혁명가들에게 맡겨진 기본임무이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여 그들이 조선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데 우리 당 사상사업의 목적이 있다고 하시면서 사상사업은 마땅히 조선혁명을 잘하는데 복종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당 사상사업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들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나라의 력사, 우리 인민의 투쟁력사를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널리 선전하며 특히 우리 당의 투쟁력사와 혁명전통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우리 당의 투쟁력사와 혁명전통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여야 그들로 하여금 주체의 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우리 당이 이룩한 혁명업적과 투쟁경험을 따라배워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가게 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상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자기의것을 성실히 연구하고 그것에 통달하며 특히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 정통하도록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를 세우는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주의적애국주의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 뗄수없이 련관되어있다는것을 명확히 밝히시였으며 사상사업에서 형식주의를 극복하고 선전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할데 대하여서도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연설은 우리 나라에서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뿌리빼고 사상사업은 물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우는데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한 강령적지침으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으로 조선로동당 제1차 사상일군대회를 계기로 하여 사상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사상전의 포성을 높이 울려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상사업에서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사상전을 전개하시면서 우선 사상교양의 내용을 우리 인민들이 자기의것을 잘 알도록 하는데 지향시키고 사상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우리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사업에 불을 지피시였다.

우리의것을 안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 혁명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안다는것이고

항일혁명투쟁을 핵으로 하는 우리 인민의 애국적인 투쟁력사를 안다는것이며 반만년의 단일민족으로 그 이름 자랑높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민족전통과 삼천리금수강산을 안다는것을 의미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45(1956)년 2월 중순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를 소집하시고 당사상사업의 내용과 형식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 혁명전통을 해설한 도서들을 대대적으로 출판하며 국립중앙해방투쟁박물관(조선혁명박물관)을 더 잘 꾸리게 하시는 한편 당조직들과 사회단체조직들에서 당문헌과 당력사, 혁명전통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모든 당조직들과 선전문화기관들이 우리 나라의것을 위주로 하여 선전선동사업을 진행하며 그 형식과 방법도 우리 인민의 감정과 구미에 맞게 전반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당단체들과 일군들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 우리 당의 력사와 혁명전통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며 우리 나라의것을 위주로 하여 선전선동사업을 진행하고 그 형식과 방법도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과 구미에 맞게 개선해나갔다.

모든 교양망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당의 로선, 정책에 대한 학습을 전면적으로 진행하였으며 강연선전에서는 당정책강연비율을 높이고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빠짐없이 강연체계에 망라되어 당의 정책적요구들을 제때에 알수 있게 하였다. 전국의 모든 대학들에서는 《조국의 자유독립과 민주건설을 위한 조선로동당의 투쟁》과목을 기본정치과목의 하나로 정하고 이 과목에 대한 교수를 체계적으로 깊이있게 진행해나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농민들에게 협동화의 우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도 우리 나라의것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어느 지방 농민들은 농업협동화운동에서의 쏘련의 경험이나 중국의 경험을 소개해도 듣지 않고 국내 다른 지방의 경험을 소개해도 듣지 않았으나 같은 산간지대 협동조합들의 경험을 소개하였을 때에는 납득하였다는 사실을 료해하시고 이것은 다른 나라의 경험을 섭취하거나 실천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언제나 자기 나라, 자기 지방, 자기 마을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좋은 실례라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상사업에서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사상전을 전개하시면서 또 한 사대주의, 교조주의, 수정주의, 종파주의를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날카롭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특히 문학예술분야에서 반동적사상경향을 반대하고 우리 당의 문예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시였다.

전후시기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문학예술분야에 끼친 사대주의, 교조주의, 수정주의후과는 그 어느 부문보다도 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45(1956)년 1월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를 소집하시고 당의 문예정책을 외곡집행하며 문학예술분야에서 반동적부르조아사상을 퍼뜨린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죄행을 폭로비판하시고 당사상사업의 내용과 형식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시였다. 특히 우리 나라의 현실과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모습을 생동하게 반영하고 우리의 고유한 민족적예술형식을 잘 살려 문학과 예술을 주체성있고 계급선이

뚜렷하게 발전시키도록 하시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려도 주체를 세워 자기의것을 그리고 노래를 불러도 우리의 노래를 부르며 그것을 가지고 인민들의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높여주고 그들을 애국주의정신으로 교양하도록 하시었다.

사상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민족적자부심과 자주의식이 비상히 높아지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모든것을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그리고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혁명적기풍이 서게 되었다.

이처럼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우리 당의 일관한 투쟁에서 주체44(1955)년은 하나의 전환점으로 되었다. 우리 당은 이때부터 세계사회주의 운동안에서 나타난 현대수정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기 시작하였으며 교조주의를 반대하는 우리 당의 투쟁은 현대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결합되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 당 사상사업은 진실로 우리 당과 혁명에 이바지하며 우리 인민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복무하는 참다운 사상사업으로 되게 되었으며 자기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상의 힘으로 부강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 오늘의 진군길에서 더욱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다.